

삼성물산 건설부문 국립 생태체험관 신축현장 안전으로 환경과 건축 역사에 남을 건물 지을 것

취재 · 사진 | 연슬기 기자 skyway@safety.or.kr

불과 2년 전 한적한 시골 농경지였던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일대. 푸른 들판과 초록의 나무만 가득했던 이곳이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생태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무려 99만8,000㎡의 사업부지에 생태연구센터, 생태교육센터, 생태체험관, 야외생태체험공간 등이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창 조성되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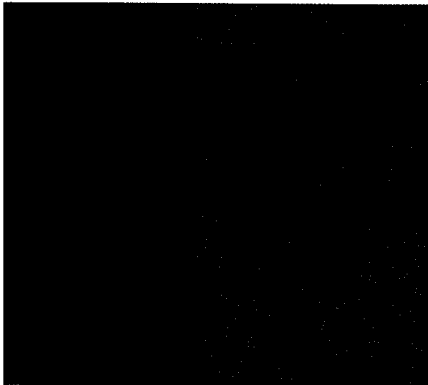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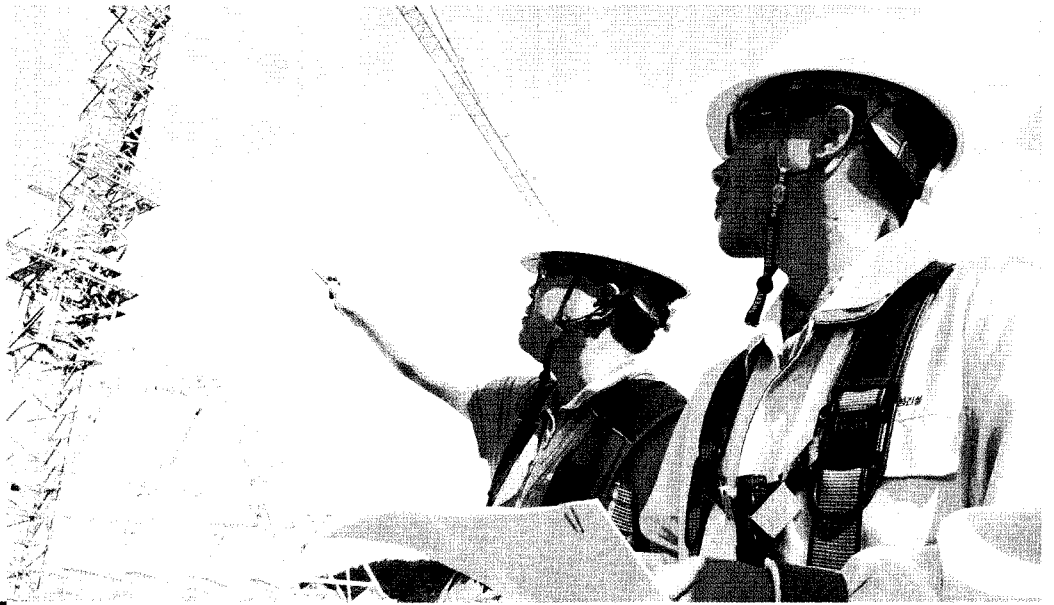
각 시설 모두가 세간의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 중에 있는 '국립 생태체험관'은 아직 완공 전임에도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열대관, 아열대관, 지중해관, 온대관, 극지관 등 지구의 5대 생태계를 재현하는 '국립 생태체험관'은 전 세계 각지의 유명 생태관들의 모든 장점에 국내민의 독창성을 더해 현존 최고 생태체험관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때문에 시공사의 지극심이 남다른 것은 당연한 일. 최신 친환경 공법을 바탕으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혼연의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안전'이다. 후세에 환경보존과 보호의 필요성을 전하는 의미 깊은 장소이니 만큼 안전사고로 그 취지를 얼룩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곳 임직원들의 각오.

안전으로 역사에 기록될 건축물을 만들고 있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국립 생태체험관' 신축현장을 찾아가 봤다.





안전은 사랑입니다

“안전활동은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동료들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니 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다치지 말아야 하며, 또 자신의 가정이 소중한듯 동료의 가정도 소중한 것이니, 동료의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 동료들 보살피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안전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이는 이곳 현장의 총 책임자 송승현 소장(공학박사)의 말이다. 송 소장은 이런 신념에 입각해 현장을 따뜻하고 서로를 위하는 분위기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서로의 마음에 다가가는 ‘감성 안전’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근로자 이름 부르기’다. 송 소장은 본인이 직접 근로자들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관리자들로 하여금 수시로 근로자들의 이름을 외우도록 독려하고 있다.

송 소장은 “아저씨 또는 거기도 등의 표현은 근로자의 책임감과 현장의 결속력을 저하시켜 결국 현장 내 안전관리체계를 허술하게 만듭니다. 반면 홍길동 형님, 홍길동씨 등 근로자의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주면 근로자는 자신 역시 현장의 구성원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또 나아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안전활동에 나서게 하는 원동력도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곳은 식염, 냉온수기 등이 갖춰진 근로자 휴게실과 샤워실 등도 운영하고 있으며, 등반 대회 등 친목도모 행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관리포인트를 단순화 하라

이곳 현장 안전관리의 가장 큰 특징은 장비협착, 추락, 화재 등 세 가지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은 재해를 3가지 정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것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는 송 소장의 안전관리 철학에 기인한다.

먼저 장비협착재해 예방부분을 살펴보면, 이곳 생태체험관은 약 7만6,000m²의 넓은 대지 곳곳에 건축물이 들어선다. 때문에 다양한 양중, 이동장비가 한 번에 여러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관리가 조금만 미흡해지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 것.

이런 점에서 이곳은 장비작업계획서를 작업 하루 전까지 제출토록해 미리 안전한 작업계획을 설정하는 한편 작업 시에는 관리자를 배치하여 작업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추락재해 예방부분을 살펴보면, 이곳 건축물은 크게 4개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최대 높이 35미터의 철골 트러스로 기반을 이루고 있다. 현재 트러스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어

위험성이 다소 줄긴 했지만, 한창 작업 당시에는 추락재해의 위험성이 상당했다.

이런 위험성에 대처기 위해 이곳은 시스템 서포터 밑에는 전부 안전망을 설치하고, 단부에는 안전난간대를 모두 설치했다. 또 커튼월 공사, 지붕공사 시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비계와 작업 발판을 전부 설치했다. 이런 철두철미함 때문에 이곳 현장에선 본 건축을 위한 시설물보다 안전시설물이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끝으로 공들인 작업이 한 순간의 화재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 하에 이곳은 미리미리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다.

모두가 함께 하는 '안전활동' 을 꿈꾸다

이곳은 현재 협력사가 안전활동의 또 다른 축이 되게 하려 노력하고 있다. 협력사의 임직원들이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내놓는 등 안전활동의 최일선에 나서게 하려는 것. 이는 현장 안전관리를 '자율안전관리체계' 로 나아가게 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자율안전' 을 향한 노력은 근로자 관리면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곳은 근로자들을 벌칙이나 제재 등 강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격려와 포상을 해준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근로자 즉시 포상제'.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우수한 안전활동을 했을 때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칭찬과 함께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근로자들이 어색해했으나 지금은 스스로 위험사항을 개선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할 정도로 활성화됐다.

이곳 현장은 시공사와 협력사 그리고 근로자들이 조화를 이룬 안전관리의 모범적인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의 상생하는 안전관리가 더욱 많은 현장에 퍼져 쉽사리 줄지 않고 있는 건설재해가 큰 폭의 감소를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재해의 위험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위험요인이 없도록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할 때 안전전문가를 참여토록하여 안전을 고려한 공법만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한순간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지금부터 안전 전문가를 많이 육성하고, 법 제도 등도 정비하여 당연히 안전전문가가 설계에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모여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가 건설현장에 자리 잡는다면 분명 재해는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승승현 현장소장

